

기획 특집 **일곱교회**

- 에베소 교회
- 서머나 교회
- 버가모 교회
- 두아디라 교회
- 사데 교회
- **빌라델비아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1)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불지여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3:7~8)



당회장 이재록 목사

-
- 예수교대한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 기독교 의사 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코리아헤럴드, 시사뉴스, 크리스찬신문 등에 신앙칼럼 정기 게재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던 당시 빌라델비아는 전체 인구가 1천여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한 그곳 사람들은 디오니소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를 숭배할 만큼 포도주와 춤 등 향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충지로 당시 사데, 버가모, 트로이를 거쳐 로마로 가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세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로, 오늘날 많은 교회의 표상이 됩니다.

1.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신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사람보다 뛰어나며 죄에 물들지 않고 흠과 점이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뜻입니다. 원래 거룩하다는 표현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진실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서는 거룩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벧전 1:16). 요한복음 10:34~35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란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사람을 뜻하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신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라 인정한다 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은 신의 차원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서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6)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음으로, ‘진실’은 거짓이 없는 참을 뜻하며 변개하지 않는 것, 좌우로 치우치거나 간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 믿음도 주어지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실하지 못할 때에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거나 비진리에 유혹될 수 있고, 진실한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고전 2:13).

2.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축복의 문이든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격을 얻기까지 다윗에게는 혹독한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뒤 그녀가 잉태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아가 얼마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충성된 사람이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삼하 11장). 다윗은 것처럼 선한 부하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엄청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특별히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여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권세를 가진 왕의 위치에 있었기에 마음 깊이 내재된 본성 속의 악이 결국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것이라도 악의 모양이 남아 있으면 그럴 만한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질 때 언제든지 범죄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연단을 허락하여 철저히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 온전한 성결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다윗은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들 암살범의 반역으로 쫓길 때 자신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백성을 벌하지 않았습니다(삼하 16장).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었지요. 이전에 왕의 권세로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연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된 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계보를 통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 결국 구원의 문이 열리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만큼 건강, 물질, 명예, 권세의 문이 열리고, 종국에는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문을 여는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열쇠, 곧 모든 축복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로써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열리고 그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습니다(행 4:12). 원수 마귀 사단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번지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오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 (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 (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 (02)818-7391~3

|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 |
|--------------------------|----------------------------|
| 주일 대예배 | 1부 10:00 AM 2부 11:30 AM |
| 주일 빛과소금순교회 예배 | 9:00 PM |
|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순교회 예배 | 11:00 PM |
| 주일 저녁예배 | 3:00 PM |
| 금요철야예배 | 11:00 PM |
| 수요예배 | 7:00 PM |
| 화요찬양예배 [대학·가난·청년·배울·미리애] | 8:00 PM |
|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 9:00 PM |
|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 4:00 PM |
|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 3:00 PM |
| 다니엘철야기도회 | 9:00 PM (매일, 단, 공휴일은 제외) |
| 새벽예배 |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대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